

## “아산의 삶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첫 시도”



학술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을 주제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77년 7월 1일 설립된 아산재단은 매년 창립 기념일에 즈음해 심포지엄을 열어 왔다. 올해는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설립자의 삶과 정신세계를 학문적으로 탐구한 ‘아산, 그 새

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이라는 제목의 <아산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집필자들이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김병수 전 연세대 총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최순자인 하대 총장, 김인자 서강대 명예교수, 최만

립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 정·재계와 언론계, 학계, 설립자 지인과 관계사 전·현직 임원, 그리고 정몽운 현대해상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수 20명의 연구결과가 4권의 책으로 묶인 <아산 연구총서>는 경제와 문화·사회·체육·교육·통일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 설립자의 업적과,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한 정신과 가치관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후대에 좋은 자료로 남기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아산재단과 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연구원이 공동주관해 발간이 이루어졌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등 5명이 집필한 제1권은 ‘열과 꿈’이라는 제목 아래 5편의 연구 논문이 실렸고, ‘살림과 일’이라는 제목의 제2권에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4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제3권은 ‘나라와 훗날’이라는 제목 아래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장을 대표 필자로 6명의 필진이 논문을 실었고, 마지막 제4권의 제목은 ‘사람과 삶’으로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명의 논문이 게재됐다(※관련기사 40~43p).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위). <아산 연구총서>(전 4권)는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다.

## 아산 탄신 1세기가 주는 의미

박종희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부원장(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포지엄이 시작됐다. 국민의례 뒤 단상에 오른 정진홍 아산리더십연구원 원장(석좌교수)은 “아산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넓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세계적인 차원에서 존경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의 귀감”이라고 설립자를 규정한 뒤 “아산 탄신 1세기를 맞아 그의 ‘인간’과 ‘업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아산 연구총서>를 기획·출간하게 됐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정 원장은 이어 “아산은 이미 자연인 ‘아산 정주영’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문화 속에서 ‘아산 현상’으로 있다. 그 현상

은 숭모의 대상을 넘어 연구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설립자의 송전보통학교 졸업식과 가족 사진,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면담 사진 등과 일화를 소개한 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미국 <타임>지는 ‘아산은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기사를 썼다. 아버님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립자를 회고했다.

<아산 연구총서>에 대해서는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두 권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와 <이 땅에 태어나서>보다 아버님의 삶에 대해 더 감동적으로 전달할 책이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학술총서 출간이 아버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일생에 대한 학술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권하셔서 이 작업에 동의했다. 교수님들의 노력이 담긴 글들을 받아보니 이 작업을 진행하길 잘했다, 아버님께서도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연구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아버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글귀인 ‘담담한 마음’으로 아버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인사말 전문은 아산재단 홈페이지 참조).

축사에서 이홍구 전 총리는 “<아산 연구총서>는 아산에 대한 단순한 평전을 넘어선 학술 차원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서는 일찍이 없었던 대단히 야심적인 실험”이라고 평가한 뒤 “<아산 연구총서>는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라 ‘소셜 아트’ 즉 ‘사회예술’에 가깝다”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또한 아산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학습

심포지엄의 1부는 설립자를 회고하는 5분간의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1940년대 설립자가 운영하던 자동차 수리공장의 화재와 재기, 1970년대 조선소 건설, 아산재단과 의료취약지역의 아산병원 설립 등 설립자의 도전 정신과 긍정적 사고, 사회공헌 정신의 형성과 계승을 보여준 영상 중간에는 설립자의 중앙대 강연 모습이 육성과 함께 흘러나오기도 했다.

영상에는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과 김양식 시인의 회고담이 더해졌다. 민병철 원장은 “아산재단을 만든 뒤 장학금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후원도 해주고… 정말 큰 사람이었다”고, 김양식 시인은 “문학소년 같은 맑은 가슴을 갖고 계셨던 정주영 회장님의 출현은 우리나라의 큰 복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서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제1~2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1주제는 <아산 연구총서> 제1권 제목인 ‘열과 꿈’이었는데, 1권에는 ‘상상력의 공간·창업·수성에 나타난 아산 정신’, ‘자기구현의 인간학-아산의 인성’, ‘긍정·도전·창의의 기반-아산의 자아구조’, ‘순응·확장·관리-아산의 학습생애’, ‘기업가 정신과 문학-아산의 독서경험’ 등 5편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 첫 번째 토론에는 대표 집필자인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와 정진홍 원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소래섭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함재봉 원장은 “아산 선생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 운영과 복지 등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정진홍 원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산과 평



〈아산 연구총서〉 발간 취지를 설명하는 정진홍 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연구원 원장(왼쪽). 심포지엄 1부 토론에 참석한 집필자들. 왼쪽부터 함재봉(진행) 원장, 홍선미·최재성·김태영·이봉주·김진 교수.

범한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라며 "그것이 미래에 대한 그의 도전 정신과 창조적 상상력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강대중 교수는 "아산은 평생 학습을 지속한 인물"이라면서 "배움이 아산을 현대 그룹 확장과 국가적·세계적 리더로 확장시킨 동력"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중에서 아산처럼 많은 문인과 교류한 기업가는 없다"고 밝힌 소래섭 교수는 "어린 나이에 이광수의 〈흙〉과 박화성의 〈백화〉 등의 소설을 탐독한 아산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신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 기간복지·애국복지 실천

제2주제 역시 함재봉 원장의 진행으로 제4권 제목인 '사람과 삶'을 주제로 집필자 5명이 연구내용을 요약 발표한 뒤 진행자와 질의응답을 나눴다.

대표 집필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더불어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영 성균관대 SKK GSK 부원장,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한 4권에는 '한국형 복지국가-아산 복지 정신의 함의', '자아·가족·사회-아산의

사회공헌정신의 형성과 계승', '복지재단과 복지사회-아산사회복지재단의 한국적 의미', '의료복지와 경쟁력을 빚어내다-아산병원의 의료 모델', '희망과 치유의 철학-아산의 삶과 한국사회의 미래' 논문이 실렸다.

"경제에 기간산업이 있듯 아산 선생은 가난과 질병 퇴치를 위해 '기간 복지'를 하신 것 같다"는 함 원장의 설명에 최재성 교수는 "아산이 1977년 개인재산인 현대건설 주식 절반을 출연해 아산재단을 세운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1년 예산이 30억 원이었는데 5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개인 돈을 가난과 질병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것은 '애국 복지'에 다름 아니다. 아산은 기업이 정신과 사회사업가 정신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사회혁신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교수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도전 정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향한 지속적인 열정', 장기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방 아산병원이 보여준 획기적인 '의료복지', 서울아산병원의 세계적인 '의료 경쟁력 및 선진화', 급증하는 소비자 의 의료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 의료 서비

스 제공' 등 복지와 경쟁력의 선순환을 아산병원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교수는 "아산은 지역사회학교 운동에 참여해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에 투자함으로써 단어조차 없던 '교육 복지'를 실천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일깨웠다. 1시간 30분가량의 1부 순서가 순식간에 끝났다. 20여분의 휴식시간 뒤 다시 영상 상영으로 심포지엄의 2부 막을 열었다.

영상은 1982년의 서산방조제 건설과 중동 진출, 기능공 양성, 88 서울올림픽 유치와 소매 방북 등이 드라마틱하게 상영되면서 설립자의 기업관과 자본주의 정신, 인본주의, 국가관 등을 보여준 뒤 "나는 이 땅에 태어나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이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에 한몫을 다한 것에 무한한 긍지를 갖고 있다"는 설립자의 말로 끝맺었다.

영상 중간에는 1부와 마찬가지로 이춘립 전 현대중공업 회장과 보사부 장관을 지낸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이 설립자를 회고했다.

이 전 회장은 "아시아의 영웅인 정주영 회장님의 위대한 지도력 아래 우리도 국내 1등만이 아니라 세계 1위를 한번 해보자고 뚝뚝 뭉쳤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권 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집필자들의 연구결과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왼쪽). 2부 토론자들. 왼쪽부터 정진홍(진행) 원장, 김석근·왕혜숙·양준석·강원택·정태현 교수.

총장은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학교로 오셨고, 학생들한테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시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면서 인재를 중요하게 여긴 설립자의 남다른 모습을 전했다.

1부 주제가 인문학과 사회복지학 범주였다면, 2부는 사회학과 정치학 관련 내용들로서 정진홍 원장이 2부의 제3~4주제를 이끌었다.

제3주제는 〈연구총서〉 제2권 제목인 ‘살림과 일’이었다. ‘한국적 경영-아산의 인격주의’, ‘유교와 민족주의-아산의 기업관과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의 마음-아산의 파우스트 콤플렉스’, ‘중산층 사회의 등장-아산의 기능공 양성’ 논문을 집필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가 단상에 올랐다.

### 젊은이들을 중산층으로 상승

이재열 교수는 설립자의 업적에 대해 “아산의 기업관은 서구식 정의나 공리와 달리 한국적인 ‘의리’에 바탕을 두었다”면서 “한국적 문화규범에 잘 부응하는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냈다”

고 평가했다. 류석춘·유광호 교수는 “아산은 중공업을 일으킴으로써 농어촌과 도시 중하층 출신의 젊은이들을 자부심을 가진 중산층으로 계층 상승을 시키고 풍요로운 중산층 사회를 등장시켜 민주사회의 토대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제4주제는 〈아산 연구총서〉 제3권 제목인 ‘나라와 훗날’이었다. 제3권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아산의 유교윤리와 국가인식’, ‘발전국가와 기업-아산의 인정투쟁’, ‘서울올림픽-아산의 정치외교사’, ‘실리적 남북경협-아산의 탈이념적 구상과 실행’ 등의 논문이 실렸다.

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에는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장장과 왕혜숙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양준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태현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석근 센터장은 “아산이 비록 ‘현대’라는 회사이름을 선택했지만 전통과 단절되지 않은 선비정신을 지닌 점이 신선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다룬 정태현 교수는 “아산의 소떼방북을 다룬 연구논문이 없어서 놀랐다”면서 “아산처럼 남북관계

를 제대로 풀어야 동북아에서의 한반도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립자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학술 심포지엄은 4시간 동안 진행된 뒤 오후 6시경 끝났다. 사회자인 박종희 부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아산을 학술적으로 처음 조명해본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한 뒤 심포지엄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회의를 경청한 참석자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정몽준 이사장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설립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담긴 일화와 의미를 설명해 주어서 설립자를 회상하기 좋았다”고 말했다. 또 “1부와 2부 주제발표에 앞서 상영한 설립자와 지인 인터뷰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며 감동을 전했다.

심포지엄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참석자들은 설립자의 사진 전시장을 찾아 설립자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한 참석자는 “설립자를 명망 있는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이 신선했다”면서 “사진전이 함께 열려 경제와 문화, 스포츠,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남긴 설립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